

현대·기아차, SUV·친환경차 타고 만리장성 넘는다

2019 상하이 국제 모터쇼 개막

현대, 中 정부 친환경차 규제 대응 중국형 신형 쏘나타 등 13대 공개

기아, 친환경 기업 이미지 강화 올뉴 K3·즈파오 등 16대 전시

벤츠, 소형 SUV 콘셉트카 첫 공개 BMW, 뉴 3, 8시리즈 등 최초 선보



현대차, '중국형 신형 쏘나타'.



BMW '뉴3시리즈 롱휠베이스'.



아우디 콘셉트카 'AI:ME'.

◆현대·기아차 현지 모델로 공략

현대·기아차는 사드 보복 및 베이징 1·2공장 가동 중단 등 악재 여파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화'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도 현지 모델을 대거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2880㎡(약 871평)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13대의 차량을 공개했다. 신차로는 중국형 신형 쏘나타와 신형 ix25, 중국형 코나인 엔씨노 전기차, 중국형 아반떼 링동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선보였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로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규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국 시장 주력 SUV인 중국형 싼타페 '성다'와 넥쏘를 전시하고 i20 WRC, i30 N TCR, 벨로스터N퍼포먼스 카 등

고성능 모델도 내놓았다. 중국 전략형 세단인 라페스타는 쇼카로 전시했다. 중국 바이두의 음성인식과 신형 쏘나타에 처음 적용한 현대 디지털키 등의 신기술 체험 콘텐츠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2475㎡(약 749평)의 전시장에 16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신차로는 중국 전용 모델인 올 뉴 K3와 올 뉴 K3 PHEV 2종이다. 미래 전기차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도 전시해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 경쟁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차는 스포티지 개조차와 중국 전략형 SUV 모델인 즈파오와 이파오, KX 크로스 등을 선보인다. 스팅어와 K5 프로, K5 PHEV 등도 내놓았다.

기아차는 이번 상하이모터쇼를 통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기아차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친환경·신기술 선도 기업의 이미지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업체 SUV·친환경 모델 공개

메르세데스 벤츠는 소형 SUV 콘셉트카 'GLB'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소형 SUV이지만 넉넉한 내부공간을 통해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중국 시장만을 위해 개발된 '메르세데스-AMG A 35 4매틱스 세단'도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순수전기차 '더 뉴 EQC'도 중국 최초로 선보였다.

BMW는 중국 시장만을 위해 독점 개발한 '뉴 3시리즈 롱 휠베이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휠베이스 길이 확장으로 동급 최고의 뒷좌석 공간이 확보됐다. 엔진은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4기통 엔진이 탑재됐다. 또 뉴 8시리즈 쿠페와 뉴 8시리즈 컨버터블 모델들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BMW는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럭셔리 세그먼트 모델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BMW는 'BMW 비

전 i넥스트'(배출가스 없는 혁신모델), 'BMW iFE.18'(순수 전기 레이싱카) 등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폴크스바겐은 대형 SUV 전기차인 'I.D. 룬즈'를 세계 최초로 전시했다.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인 'ID' 시리즈 중 하나로 2021년 중국 시장에 출시될 친환경 SUV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모델이다.

아우디는 2대의 월드 프리미어를 공개하고 신형 모델을 중국 시장에 출시한다. 아우디는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미래 이동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아우디 'AI:ME' 콘셉트카를 공개하고, 아우디 e-트론과 Q2L e-트론 시리즈를 선보인다. Q2L e-트론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소형 SUV 모델로 중국 포산 공장에서 생산되며 올해 여름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상하이서 드러난 SK이노의 존재감... 전기차 배터리 두각

'상하이 모터쇼' 단독 참가 미래차 관련 핵심부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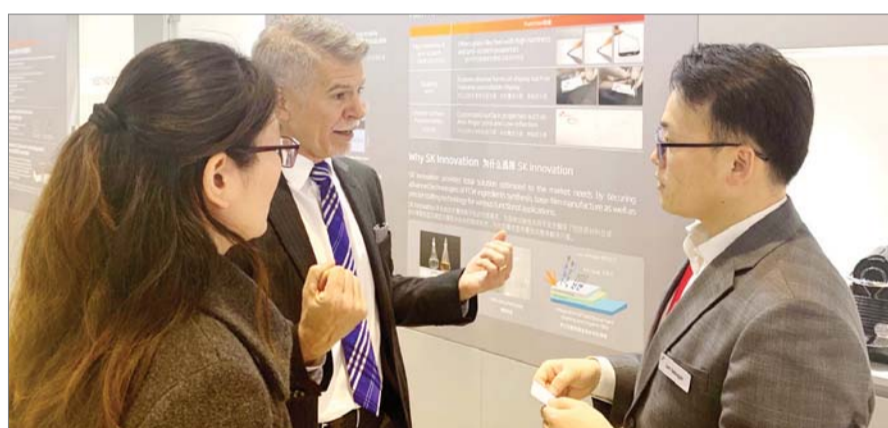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이 16일 '2019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린다. 지난 해 베이징 모터쇼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참가다.

SK이노베이션은 '함께 앞으로(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전기차 배터리 제품 및 리튬이온 배터리분리막(LiBS),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FCW) 등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첨단 미래차 관련 핵심부품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들

을 만나는 등 중국 시장 동향 파악에 나섰다.

상하이 모터쇼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쇼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은 완성차 업체 등 잠재적 사업 파트너들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에게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보여줄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를 향한 전진' 콘셉트에 따라 최근 분사한 SK이노이테크놀로지 생산하는 LiBS, FCW 제품도 공동 전시한다. 특히 LiBS를 활



SK이노베이션 직원이 부스에 방문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 배터리 구성 원리를 현장에서 소개 하면서 고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

엔 중국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의 합작을 통해 BESK의 100% 자회사인 BEST를 설립, 장저우 시에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총 82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약 7.5GWh 규모로 건설 중인 이 공장은 SK이노베이션의 첫 중국 배터리 셀 공장으로서, 내년 상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확대될 중국 배터리 시장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도에는 중국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0억 위안을 투자해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인 BESK를 설립했다. 이 합작법인은 베이징에 위치한 공장에 배터리 팩 제조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美서 실물공개

출시 전 기자·인플루언서에 선배 "주름 있지만 신경쓰지 않을 정도"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미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이달 26일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15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갤럭시 폴드 실물을 기자와 인플루언서에게 처음 공개했다.

외신은 갤럭시 폴드의 완성도에 좋은 점수를 줬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작아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과 1980달러(약 225만원)의 비싼 가격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갤럭시 폴드 실사용 영상이

공개된 이후 화면 주름 논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라는 반응을 내놨다.

미국 IT매체 엔가젯은 "갤럭시 폴드의 견고한 마감에 놀랐다"며 "모토로라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열거나 닫기에 용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커버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외부 화면을 탐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 더버지는 "접었을 때 매우 크고 두꺼워서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기 어렵다"면서도 "이것을 휴대하기 편한 태블릿으로 생각하면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T-현대·기아차, 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 맞손

SK텔레콤과 현대기아차가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SK텔레콤은 현대기아차와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분야의 테크·서비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육성·투자하는 '제로원 트루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란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공간 및 마케팅, 전략, 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체나 기관을 뜻한다.

양사는 5월 6일까지 2인 이상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 6월 7일까지 10개사를 선발하고, 6



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16주간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K텔레콤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상용화 시대에 유망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양사 공동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SK텔레콤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현대차는 서비스 테스트 지원 및 사업 연계가 결정되면 스타트업에 개발지원금을 제공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16주간의 육성 기간 동안 사업전략과 투자·기획 등의 분야에서 멘토링을 받고, 사무공간과 테스트 단말 등을 제공받는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AI 분야에서 누구(NUGU)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론칭한 바 있으며, 이번 모빌리티 액셀러레이터에 이어 보안·여행·VR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